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력

익산시, 현황 점검· 대응 방안 모색...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 총력

익산시가 내년도 국가예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등 중앙부처 예산안 반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26일 오후 익산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2023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황과 대응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부처 반응에 따라 사업들을 분류해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들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긍정적인 사업들은 타당성을 보강해 예산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또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세종사무소를 중심으로 김수흥·한병도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5월 말까지 부처별 예산편성이 완료되는 만큼 국·소·단장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방문·설명에 속도를 내는 등 국비 반영을 위해 전력을 다한 계획이다.

시에서 추진할 주요 신규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스마트 전장부품 OPEN-R&D 통합 지원플랫폼 구축사업 △친환경 농·건설기계 기술지원 사업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단계별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으로는 △국도27호 대체우

회도로(서수~평장)개설 △국도23호 대체우회도로(오산 신지~영만) 개설 사업 등이 있다.

이 밖에도 환경친화도시 구축 분야로 △익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사업 △왕궁현업축사 철거 및 생태복원사업 △장정마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등이 있으며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며 기재부 심의를 통해 재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는 수준 높은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익산시,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익산시는 수준 높은 보육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연장반 전담 교사와 보조·단체 교사 및 조리원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을 지원해 보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영유아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부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만 3세 이상 영유아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간담회 추진을 통해 어린이집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육 품질 향상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전체 163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연중 정기 점검과 안전, 급·간식, 위생·차량 등 특정 분야에 대한 특별점검, 민원·이용 불편 신고사항 등에 대해 즉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원장·보육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운영 전반, 아동 및 보육 교직원 관리, CCTV 설치·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자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연한 봄에 아이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대한다”며 “보육 현장 의견 청취와 정책 마련을 통해 영유아와 교직원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4차산업 이끌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선정... 국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 확보 쾌거

익산시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으로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메이커 문화를 확산해 나간다.

26일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되어 국비 포함 총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드는 사람이란 뜻을 가진 메이커(maker)는 4차산업과 제조업이 결합된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작자들을 말한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시제품을 양산하기 전 단계에

서 제품 설계와 제작을 하는 공간으로 3D 스캐너 등 전문 장비와 인력을 지원하여 창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운영 내용으로는 3D 설계 및 스캐닝을 활용한 시제품 3D 설계 서비스 제공, 관료개척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운영, 미디어콘텐츠 전문메이커스튜디오 운영을 통한 미디어 그래픽스 교육·영상 촬영 장비 실습 교육 등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2026년까지 5년간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소상공인창업지원단에서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관내 중

소벤처기업의 전문메이커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기술형 제조 창업으로 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창업생태계 산업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익산시 콘텐츠 제작지원센터(익산상공회의소 1층)를 구축해 제품 디자인 설계 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오택립 시장 권한대행은 “3D 역설계의 주 활용 분야인 자동차 분야, 기계 부품, 문화산업과 관련한 관내 기업 수가 350여개 이상이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원예농산물 재배기술 시기별 현장 밀착형 컨설팅 추진

군산시는 원예농산물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배기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 현장컨설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급변하는 사회 소비 트렌드에 부응하고 로컬푸드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원예농산물 생산에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원예농산물 전라북도 현장컨설팅 과정을 개설해 노지인파, 시설딸기, 시설가지, 유럽계포도 4가지 품목을 운영 중이며, 한달에 1~2회씩 품목별 재배 시기에 맞게 농가 맞춤형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노지인파는 경영비 절감을 위한 기계화재배 위주의 교육을 실시 중이며, 시설딸기와 가지는 평당 생산량 증가를 위한 시설하우스 환경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유럽계 포도는 관내에서 처음 재배하는 전라파수인 만큼 신규농업인 참여가 많아 토양 준비, 과원조성 방법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전정기술, 생장조정제 처리 방법 등 재배에 필수적인 내용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오가며 제공하고 있다.

신동우 기술보급과장은 “연중 40회 정도 지원되는 이번 컨설팅으로 농가들의 작물 재배 능력이 배양되고 경

영비 절감과 단위면적당 생산량 향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기회삼아 관내 원예농가들이 많아져 군산시에 다양한 작물들이 재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농업 발전 이끌 정책자문단 활동 본격 돌입

익산시는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정책 추진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

시는 26일 북부청사 회의실에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제공을 지원하는 선택작물제 확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산업 시스템 개선, ▲마을전자상거래와 푸드플랜 등 지역 농산물 유통 혁신, ▲농촌관광 관광객 유치, ▲미래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앞서 미래 농정 정책자문단은 농민 중심의 농정시스템 정착, 농업보조금

발전적 확대 개편,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향 설정 등의 정제안을 한 바 있다.

정명재 명예농업시장은 “지역 농업이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 모두가 행복한 익산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인 정책자문단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봉섭 미래농정국장은 “정책자문위원의 경륜과 지혜가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때이다”며 “자문단과 정기적으로 소통해 익산시가 대한민국 농정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주택 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지원

군산시는 각 가정에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옥내급수관은 각 가정의 수도계량기에서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을 말하며, 수도 설비의 노후 및 부식은 녹물이 나오는 원인이 돼 개량이 필요하다.

시는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사업을 위해 사업비 9500만원을 들여 약 50세대를 대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중위소득 46~60% 중 자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을 1순위, 기존 중위소득 46~60% 중 2000년 이전 준공주택 거주 세대를 2순위, 기존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주택 거주 세대를 3순위로, 최대 200만원과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시, 의료취약지역 찾아가는 의로서비스 개시

군산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관내 도서지역 중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없는 무의촌 도서인 5개 도서(말도, 명도, 방축도, 관리도, 두리도)를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혈압·혈당측정 △개별 건강상담 및 복지지도 △한방질환 △각종 보건교육 등 양질의 의로서비스를 제공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도서주민의 건강 돌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16개동, 10개 읍·면 의료취약지역의 경로당 80개소 및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감소하면 1개반 4명으로 편성, 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이동진료사업은 직접 찾아가는 의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